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

정책 세미나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 진단과 과제

일 시 : 2021년 9월 30일(목) 14:00~16:00

장 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2층)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 정책 세미나

- 주 제 :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 진단과 과제
- 일 시 : 2021년 9월 30일(목), 14:00~16:00
- 장 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2층)
- 주 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및 좌장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4:05~14:10	인사말씀 -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14:10~14:30	발 표 자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 진단과 과제 -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4:30~15:40	지정토론 - 손민경(서울시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장) - 박미란(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 고익숙(남광초등학교 교감) - 민근희(초등학생 학부모) - 이승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한영진(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강순녕(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15:40~16: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폐회	

※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참석범위 등 인원 제한

발 표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 진단과 과제

손 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

-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 진단과 과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코로나 위기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만(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9.1.%12.14.), 방과후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 논의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의 돌봄 뉴딜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방과후 돌봄 정책 및 다양한 지역자원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제주지역 차원의 새로운 방과후 돌봄 전략이라고 지칭함
- 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학교와 마을 및 관계 부처 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계획 역시 기존의 부처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 있음. 학령기 아동의 돌봄 지원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제공기관별로 수요 아동을 찾아서 접근하는 체계임. 이러한 현실 속 코로나19로 우리사회에 닥친 커다란 변화는 학교와 돌봄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서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돌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었음
- 결국, 돌봄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예측되는 결과이며, 현실적으로 영유아기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즈음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사례가 증가추세임(김은정 외, 2019)
- 우리 사회는 여성이 육아, 가사노동,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쉽게 배제되거나 경력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약 60%)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자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학령기 아동들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응해 나가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의 권리와 사각지대 없는 방과후 돌봄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기존 과제 강화 및 뉴딜 과제

를 구성하여 제안함

2. 연구 내용

- 학령기 아동의 돌봄과 관련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고찰
- 방과후 돌봄 공급 체계 진단 및 공급 계획과 현황 분석
- 제주지역 방과후돌봄 뉴딜 방안 마련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평가 결과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뉴딜 방안 제안

3. 연구 방법

- 돌봄 관련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돌봄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연구대상 범위를 확대 표집·조사를 진행하고, 대상 요구 수렴 결과를 단계적으로 상호보완·반영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음
- 이를 위해 문헌조사, 아동 설문조사, 돌봄관련 이해당사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합리적 의사결정(AHP) 조사, 연구결과의 정책 환류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함

제2장 학령기 아동 돌봄과 관련한 논의

1. 아동 돌봄과 관련한 논의

- 최근 학령기 아동의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돌봄을 위한 공간과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돌봄과 교육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대해서는 정책의 대상자를 아동이라고 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복지국가와 성평등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그 이유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잘 고려되지 않았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상호 연관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 그동안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도 돌봄에 대한 주책임은 여성으로 접근되면서, 복지국가 정책으로 영유아의 경우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2013년부터 시행된 만0-5세의 무상보육으로 보육의 공공화가 되었음
-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동 돌봄 및 교육기관에서의 대면 서비스가 금지 혹은 제한되면서 돌봄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가족 간에 돌봄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으로 인해 돌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 그 자체를 위한 돌봄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등 아동복지 차원에서 돌봄 사각지대 대응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임
-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및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특히, 정부의 온종일돌봄 체계에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은 복지국가 차원에서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점차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화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임. 돌봄에 함께 참여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역차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돌봄 생태계 관점에서 방과후 돌봄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마을중심 자원들 간의 연대로 발달단계별 특성, 접근성과 적절성이 보호장된 돌봄시설의 위치, 서비스 선택의 다양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안 고찰

- 2021년 9월 기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로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이 있음
- 두 법안에는 모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그러나 이번 법안이 돌봄의 책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돌봄전담교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3.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 돌봄 문제 대응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돌봄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의 돌봄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 책임, 이용 대상 범위, 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대한 논쟁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등돌봄 관련 법안 제정이 어떻게 되던 간에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 제한된 이용대상자 범위, 서비스의 양과 질 문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가 있는 것임
- 첫째, 방과후 돌봄 공백의 문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결국 학령기 아동돌봄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 지원 및 권리 보장이라고 했을 때 돌봄 대상의 범위도, 돌봄 제공의 주체도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것임
- 둘째, 돌봄 이용 대상자의 범위는 현재처럼 소득기준, 가족의 형태 등에 따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아동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합의 지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서비스의 양과 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방과후 돌봄 관련된 근거법에 따라 돌봄시설 설치 가능한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기준에 해당하는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학교 내 공간뿐 아니라 마을 내 공간까지 포함하여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마을 중심의 주민센터, 마을회관, 청소년수련관, 수놓음육아나눔터 등 공유경제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임

제3장 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연계·협력 체계 진단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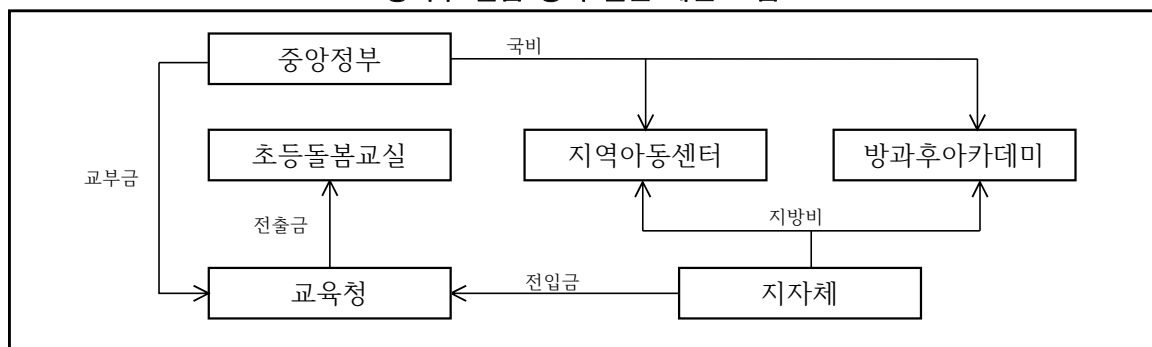
1. 방과후 돌봄 체계 진단 대상과 모형 및 공급 계획

- 본 연구는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 대상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진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슬이(2014)를 참조하여 논리 모형을 재구성함
- 모형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 대상의 방과후돌봄에 대해 자원을 투입하는 주체로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있고,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있음. 그 외에 직접적으로 돌봄 제공에 관여하는 기관으로는 단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있고, 각 기관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전담사, 생활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종사자들이 있음. 이들은 각각 돌봄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를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 본 연구에서의 돌봄정책 진단은 최초 및 중간 산출결과에 초점을 두고 방과후 돌봄 협력체계 및 현황 검토를 통해 의도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펴봄
 - 최초 산출 결과는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취약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학습능력 신장과 다양한 체험이 제공되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돌봄 제공으로 인한 만족과 심리적 안정감이 발생하게 됨(구슬이, 2014)
 - 중간 산출결과로는 방과후 시간에 대한 안전한 보호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나 방임이 강화되고, 취약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부적응이 완화되거나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사교육이나 사적 돌봄 수요 및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 제주지역 43개 읍면동별 만6~12세 아동 인구(49,937명) 대비 돌봄시설의 정원수(7,805명)를 고려하여 방과후 돌봄 수요와 공급량을 추정해 본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아동인구 대비 공적돌봄 정원률은 15.6% 수준으로 정부목표(20%)까지 4.4% 비율만큼 확대가 더 필요함. 읍면지역의 경우는 돌봄기관 외 학원 등의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지역별로 필요한 돌봄요구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임 (세부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표 3-3> 참조)
- 공급량 추정 기준은 정부의 온종일 돌봄 계획에 근거 2017년 현재 33만명(12.5%/267만명)에서 2022년 공급목표인 53만명에 계획시점 아동인원수를 고려하여 20%로 설정함

2. 방과후 돌봄 연계·협력 체계 및 공급 현황

- 그동안 방과후 돌봄 정책은 2004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주요 법적 근거가 다르고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각 부처 간 연계·협력은 온종일돌봄이 추진되면서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 예산이나 인력을 공유·활용하는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함(김은정 외, 2019)
- 정부가 추진하는 방과후돌봄 정책에 대한 재정은 현행 법률 체계를 근거로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관리법」에 관한 법률 등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방과후 돌봄 정책 관련 예산 흐름 〉



출처. 김은정 외 3인(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p.78.

-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기존의 고유 성격을 지닐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체제로 단시간 내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음(김은정 외, 2019)
-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8년 이후에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해 방과후 돌봄을 확대할 목적에서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음. 더불어 각 부처별 방과후 돌봄 정책에 따른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체계적 정책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의하면, 온종일 돌봄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2년까지 1조 1,05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임. 2020년 말 기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돌봄 예산은 6,020억 원 규모임

〈 부처별 방과후 돌봄 정책 예산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293,546	327,765	340,797	370,348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147,200	158,700	173,100	183,000
	다함께돌봄	-	900	10,600	26,200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8,476	19,695	22,402	22,641
계		459,222	507,060	546,899	602,189

주. 초등돌봄교실 지원은 방과후학교 사업비에 산정된 것이고, 예산은 단위학교의 결산보고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함.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합계예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방과후 돌봄의 법적근거, 지원대상, 운영규모, 예산 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방과후 돌봄 현황 〉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지원 대상		초등 1~6학년	만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만 6~ 12세 미만	초등 4~중등 3학년
지원 기준 (소득)		맞벌이가정 중심 (소득무관)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가정 중심 (소득무관)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자부담)	이용료 자부담 (이용료 10만원 이내 지자체별 결정)	무상
20 년 운 영 규 모	제주	224개 교실 (초등 약5천명)	66개소 (초등 약1,340명)	1개소 (초등 8명)	9개소 (초등 약240명)
		제주 방과후 공적돌봄 이용률: 약 16%(6.5천/초등생 약4만명)			
	전국	14,085교실 (초등 25만명)	4,081개소 (초등 약8.7만명)	424개소* (초등 약8천명)	304개소 (초등 약6천명)
전국 방과후 공적돌봄 이용률: 약 13%(35만/초등생 약269만명)					
20년 돌봄 예산		3,703억원 (지방비 100%)	1,83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26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22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3:7))

자료. 손태주·김은정·신승배(2020).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의 p.13에서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 다함께돌봄센터의 현황자료는 설치 센터 수 대비 이용 아동수 자료가 없음. 운영지침의 최소 시설 기준인 66㎡ 시설당 '동일 시간대 최대 아동 수 20명× 424개소=8,480명'으로 계산한 예측치.

3. 소결: 지역중심 방과후 돌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초등돌봄교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운영의 주체에 대한 논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운영에 따른 갈등 상황 등(김은정 외, 2019)으로 인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유휴 공간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제주도는 약 90%의 공립초등학교가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녁돌봄 공급은 없이 오후돌봄 공급에 집중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함(99.2%)
 - 돌봄 공백 어려움의 시간대는 학년에 따라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평일 방과후돌봄 이후 오후 5시부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임.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백시간 동안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향후 제주지역 초등돌봄교실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초등1~2학년 중심 돌봄교실 공급방향을 그대로 유지해도 돌봄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돌봄교실 운영이 없는 단위학교별 돌봄 사각지대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적 돌봄이지만 각 사업 간 협력방안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현장에서의 돌봄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는 증가수가 더딜 뿐 아니라 지역별 서비스 질의 편차가 커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돌봄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공간 확보 문제,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 문제 등 지자체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큼
 - 특히 제주도는 온종일 돌봄 체계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적 마을돌봄 확대 가능성이 낮은 실정임.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 아동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인 결과는 돌봄취약 아동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시설 수가 적고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초등 고학년만이 대상인 상황이라 돌봄 사각지대 해결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돌봄시설에 대한 아동의 선호가 집에 보호자가 없는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아동입장의 효율적 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대상 연령의 세분화 방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상의 시사점과 동시에 향후 제주지역의 방과후돌봄 공급 확대 필요 추정지역은 제주도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마을중심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설치·운영 혹은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적절한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례없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 반성이 필요함(정익중, 2020). 위기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려준다는 점으로 보면, 제주지역 읍면지역의 경우 공적돌봄 정원률은 20%(분석기준)보다 다소 높지만 공적돌봄 이외 기타 학원 등이 없어서 더욱 필요한 돌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돌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응책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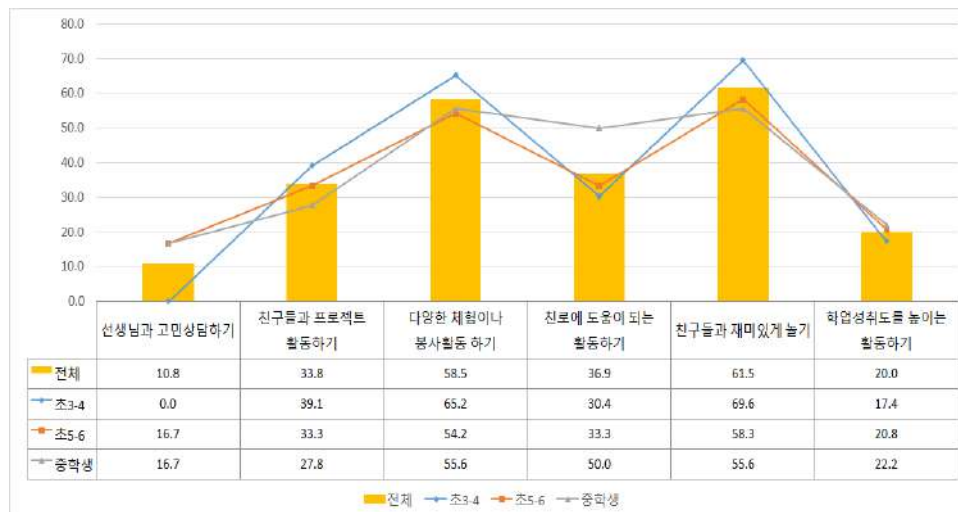
제4장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뉴딜 방안 추진 모형 도출

1. 아동 설문조사 결과

- 아동 설문조사는 방과후 돌봄 시설 이용 경험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에 거주하고 부모가 동의한 초등3학년~중등3학년 학생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함
- 응답자는 총105명이며, 유효표본 수는 92명임(초등3-4 37%, 초등5-6 38%, 중등 25%)
- 방과후 돌봄 시설을 이용했던 이유(복수응답)는 '다니고 싶어서' 55.4%로 절반 이상의 비율로 응답했고, 이어서 '방과후에 어른이 없어서' 41.5% 순임
- 방과후 돌봄 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복수응답)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61.5%)와 '다양한 체험이나 봉사활동하기'(58.5%) 비율이 절반 이상임

〈 방과후 돌봄 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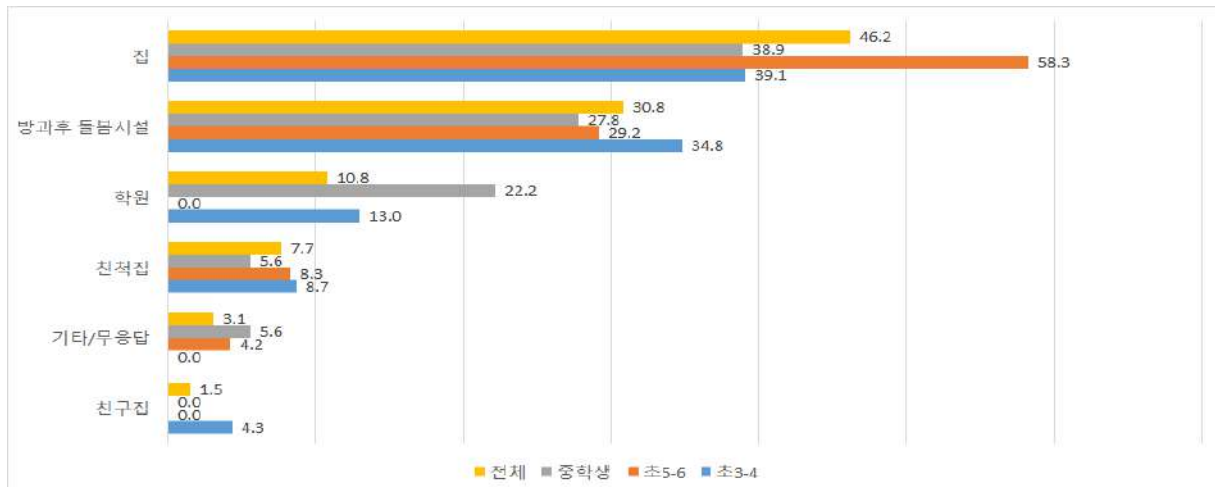
(N=65, 단위: %)



- 방과후 돌봄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 중 7.8점으로 높은 편임
- 학교급별로 초등 5~6학년이 8.3점으로 초등 3~4학년 7.6점, 중학생 7.5점보다 높음
- 부모님이 집에 없는 동안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주관식응답)은 '집' 46.2%, '방과후 돌봄시설'이 30.8%, '학원' 10.8%, '친척 집'이 7.7%임

〈 부모님이 집에 없는 동안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주관식응답) 〉

(N=56, 단위: %)



2. 이해당사자별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초점집단면접조사(FGI)는 방과후 돌봄 뉴딜 정책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돌봄 이용자 및 제공자, 전문가 등 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함
- 대상자 선정 방향은 지역유형화(과밀도심/구도심 및 도농복합형) 및 조부모, 친인척 등의 조력자 유무별에 따라, 돌봄 관련 이용자 및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누적 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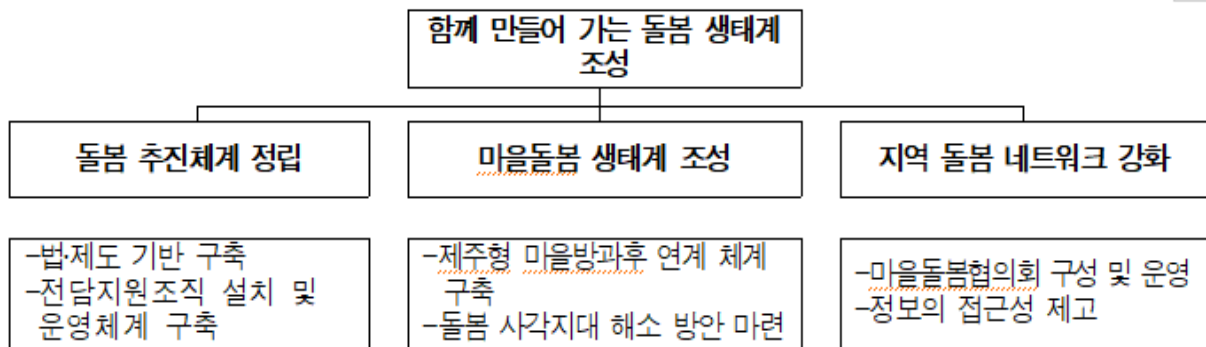
〈 이해당사자별 FGI 결과 분석의 함의 〉

구분	이해당사자별 FGI 함의
돌봄 제공자	· 아동을 중심으로 공적 돌봄 관리 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연계 중간지원센터(예: 학교방과후돌봄센터) 필요 (※경기, 세종 등 타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형태로 운영) - 신청, 수요조사, 기관연계, 인력양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홍보 등 지원체계 필요 · 아동을 위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위한 공간, 시간, 인력 등 협업체계 필요 · 발달단계 특성에 따라 학년과 연령대별로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필요 · 돌봄취약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확보와 신뢰감을 주는 기관 연계 및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지원 방안 필요 · 신규 학교 조성할 때 학교내 정규교육과정의 학교 및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 필요
돌봄 이용자	· 차상위/장애인/한부모 등 취약돌봄 가족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원 방안 필요 · 돌봄시설 끝나는 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매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필요 · 학교적응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든 초등1~2학년 대상 학교돌봄 운영 필요 · 신뢰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하기 좋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필요 · 초등3학년 이후 고학년 대상 학교-마을에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학교안이든 마을안이든 '접근성'이 확보된 '안전한' 공간이 가장 중요 · 방과후 돌봄에 대해 안내 책자 등 홍보 방안 마련

3. 방과후 돌봄 뉴딜 방안 추진 모형 도출

- 방과후 돌봄 관련 아동 설문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FGI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제주지역의 방과후 돌봄 뉴딜 정책에 대한 목표는 1) 돌봄 추진체계 정립, 2)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 3)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로 구성

〈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뉴딜 방안 추진 모형 도출 〉



제5장 방과후 돌봄 뉴딜 방안을 위한 의사결정 평가 결과

- 돌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이해당사자 조사 분석 결과, 도출된 모형을 근거로 AHP 설문을 제작하여 관련 이용자, 제공자, 전문가 등 30명 대상으로 정책과제와 사업의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조사를 2021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함
- 정책과제 및 사업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한 의사결정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뉴딜 방안 정책과제 및 사업평가 최종 가중치 〉

정책 목표	가중치	정책과제	가중치	세부사업	가중치	최종 가중치	우선 순위
1. 돌봄 추진 체계 정립	0.5324	1.1. 법제도기반 구축	0.6679	1.1.1.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제정	0.6456	0.2296	1
				1.1.2.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청 연계 (가칭)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0.3544	0.1260	2
		1.2. 전담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	0.3321	1.2.1. 마을방과후 운영 공간 발굴 및 지원	0.2671	0.0472	7
				1.2.2.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공모 및 연계 지원	0.1800	0.0318	14
				1.2.3. 돌봄 수요 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0.3241	0.0573	5
		1.2.4. 돌봄 참여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0.2288	0.0405	9		
2. 마을 돌봄 생태 계 조성	0.2383	2.1. 제주형 마을방과후 연계 체계 구축	0.5815	2.1.1. 학교 및 마을 유휴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	0.4537	0.0629	4
				2.1.2. 수요조사 기반 마을방과후 운영 확대	0.3148	0.0436	8
				2.1.3. 마을방과후 연계 차량 운행 지원	0.2316	0.0321	12
		2.2.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0.4185	2.2.1. 지역중심 긴급돌봄 구축 및 운영	0.3261	0.0325	11
				2.2.2. 돌봄 공백 아동 발굴 및 기관 연계 지원	0.3641	0.0363	10
				2.2.3. 지역 지원 연계위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0.3098	0.0309	15
3. 지역 돌봄 네트 워크 강화	0.2293	3.1. 마을돌봄협의 회 구성 및 운영	0.6730	3.1.1.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0.4509	0.0696	3
				3.1.2. 마을방과후 자문단 운영	0.2070	0.0319	13
				3.1.3. 마을돌봄기관 소통, 협력 네트워크 운영	0.3421	0.0528	6
		3.2. 정보의 접근성 제고	0.3270	3.2.1. 마을방과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다각화	0.4049	0.0304	16
				3.2.2. 방과후돌봄 홍보물 제작 및 읍면단위 배포	0.2081	0.0156	18
				3.2.3. 마을방과후 돌봄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0.3870	0.0290	17
합계						1.0000	

- 이해당사자별 정책과제 및 사업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평가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이해당사자별 뉴딜 방안 정책과제 및 사업평가 최종 가중치 〉



제6장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뉴딜 방안

1. 추진 방향

- 이론적 검토, 이해당사자별 의견수렴 및 합리적 의사결정조사 분석 결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환경은 매우 필요하고 해당 시기의 사각지대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와 개인(부모)은 모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 먼저 본 연구 조사 결과 이용자 입장에서 돌봄 어려움에 대한 의견은
 - 첫째, 도심 및 농어촌 지역이 고려되지 않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둘째, 방과후(방학 중)돌봄이 끝나는 시간부터 부모 퇴근하기까지 공백시간, 셋째, 이용 대상자 제한 등에 기인한 일반 가구 및 고학년 아동 돌봄 공백 등으로 제시함
- 이용자 입장에서 돌봄문제를 본 연구의 제주지역 공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로 보면,
 - 현재 돌봄교실은 초등 1~2학년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량에 실수요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임. 돌봄 필요에 따라 현재의 이용 우선순위를 유지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아동과 고학년 아동 돌봄 수요까지 반영하여 공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 돌봄은 지역별 편차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확대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 특히, 농어촌의 경우 기존 돌봄기관 운영은 그대로 유지되나 아동인구 감소 영향과 함께 부모의 자격 조건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이용 아동이 충분치 않아 공급량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적 돌봄 이외에 학원 등 사적 시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사각지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 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임
- 다음으로 본 연구 조사 결과 돌봄 제공자 입장에서 운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은
 - 첫째, 기관별 대상자 중복으로 인한 이용 아동 발굴 어려움, 둘째, 단위학교-마을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부재로 정보 공유 및 아동 연계 등 협력 어려움, 셋째,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임대료 문제 및 행정과 방역 업무 부담 등에 기인한 운영 어려움 을 제시함

- 제공자 운영 어려움을 본 연구의 방과후 돌봄 관리 체계를 검토한 결과로 보면,
- 현재 정부의 방과후 돌봄 공급의 주체는 다원화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소득 기준, 맞벌이 등 일정 자격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예산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실행하는 데는 추진체계, 재정방안, 공간 활용 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학교 돌봄은 교육부-교육청, 교육청-지자체 간에 공급과 운영 주체 및 역할에 따른 갈등구조 해결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임
 - 무엇보다 정부의 온종일돌봄 체계는 2022년까지 돌봄 확대를 목표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유헴공간을 협업방식으로 활용되도록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에서는 돌봄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공급구조에서는 이용대상과 공급 시간 측면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에서 학령기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최소화, 서비스 공급 다양화, 공간 접근성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마을돌봄 간의 연계, 학교돌봄-마을돌봄-사회적 돌봄 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마을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령기 아동의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 및 통합돌봄 지원조직(지원단) 운영 검토, 둘째, 오후돌봄 마친 후 3~5시에서 오후 7시까지 마을 돌봄 운영 방안 검토, 셋째,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마을자원 활용 방안 검토, 넷째, 학교돌봄-마을돌봄 간 연계를 위한 마을돌봄협의회 운영 검토, 다섯째, 방학돌봄 확대 운영을 위한 공적 돌봄 시간, 점심 제공, 마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양적 확대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함

〈 표 6-1 〉 이해당사자별 돌봄 관련 어려움 및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평가 결과 비교

구분	돌봄 관련 어려움 문제(현재 상황)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평가(요구 수렴)		
		1순위	2순위	3순위
이용자	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일부지역 돌봄교실 부재, 돌봄기관 부족 등	돌봄 추진체계 정립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	지역돌봄 네트워크강 화
	2. 방과후(방학중)돌봄 끝나는 시간부터 부모 퇴근시간까지 사각지대 발생			
	3. 이용 대상자 제한 문제			
제공자	1. 이용 대상자 발굴 어려움	돌봄 추진체계 정립	지역돌봄 네트워크 강화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
	2. 유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부재			
	3. 예산·인력 부족(임대료, 행정·방역 인력 등)			

2. 정책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차원의 새로운 방과후 돌봄 뉴딜 전략은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 생태계 환경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돌봄 추진체계 정립(0.5324)”,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0.2383)”,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0.2293)”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3개의 정책목표 및 6개의 정책과제, 1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 <정책목표 1> “돌봄 추진체계 정립”은 제주지역의 방과후 돌봄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적 돌봄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함.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법·제도 기반 구축(0.6679), 전담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0.3321) 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2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함
 - <정책목표 2>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돌봄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마을돌봄-마을돌봄 간의 연계, 학교돌봄-마을돌봄-사회적 돌봄 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함.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제주형 마을방과후 연계체계 구축(0.5815),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0.4185)으로, 이에 대한 6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함
 - <정책목표 3>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는 지역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학 간 긴밀한 상생과 연계협력 관계 체계화를 위해 필요함.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마을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0.6730), 정보의 접근성 제고(0.3270)로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6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함

〈 그림 6-1 〉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정책 목표와 과제



- 학령기 아동의 권리와 사각지대 없는 방과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뉴딜 과제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기존 과제 강화 및 신규과제로 구성하였고,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제시함

〈 표 6-2 〉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 뉴딜 과제

정책목표 (가중치)	정책과제 (가중치)	현재 상황 진단	사각지대 없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뉴딜 세부과제(가중치)
1. 돌봄 추진 체계 정립 (0.5324)	1.1. 법제도기반 구축 (0.6679)	· 부처별 법적기반 상이 · 통합 돌봄 조례 필요	1.1.1.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제정(0.6456)★
	1.2. 전담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 (0.3321)	· 부처별 사업에 따른 공급량 대비 돌봄지원 ·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 돌봄공급 수립 필 요	1.1.2.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청 연계 (가칭)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0.3544)★
			1.2.1. 마을방과후 운영 공간 발굴 및 지원 (0.2671)★
			1.2.2.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공모 및 연계 지원(0.1800)★
			1.2.3. 돌봄 수요 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0.3241)★
2. 마을 돌봄 생태계 조성 (0.2383)	2.1. 제주형 마을방과후 연계 체계 구축 (0.5815)	· 부처별 분절적 운영 · 정보공유 및 연계미비 · 초등저학년, 취약돌봄 계층 위주 돌봄 지원 · 학교후(방학중) 부모 퇴근전까지 사각지대	1.2.4. 돌봄 참여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0.2288)★
	2.2.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0.4185)	· 기관별 돌봄 사각지대 대응 노력, 연계 미비 · 제주도 특화돌봄 사업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공동체 발굴육성)	2.1.1. 학교 및 마을 유휴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0.4537)☆
			2.1.2. 수요조사 기반 마을방과후 운영 확대 및 기존 돌봄기관의 운영 활성화 지원(0.3148)★
			2.1.3. 마을방과후 관련 모니터링 및 연계 차량 운행 지원(0.2316)☆
			2.2.1. 지역중심 긴급돌봄 구축 및 운영 (0.3261)☆
3. 지역 돌봄 네트 워크 강화 (0.2293)	3.1. 마을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0.6730)	· 광역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 · 실질적 연계협력 위한 행정간, 관계기관 간, 상 시 소통시스템 필요	2.2.2. 돌봄 공백 아동 발굴 및 기관 연계 지원(0.3641)☆
			2.2.3. 지역 지원 연계위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0.3098)☆
			3.1.1.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0.4509)☆
	3.2. 정보의 접근성 제고 (0.3270)	·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기관별 분절적 홍보 · 지역 통합돌봄 신청 정보 플랫폼 필요	3.1.2. 마을방과후 자문단 운영(0.2070)★
			3.1.3. 마을돌봄기관 소통, 협력 네트워크 운영(0.3421)★
			3.2.1. 마을방과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다각화(0.4049)★
			3.2.2. 방과후돌봄 홍보물 제작 및 읍면단위 배포(0.2081)★
			3.2.3. 마을방과후 돌봄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0.3870)★

주1*: 우선순위는 본 보고서 5장(p.97)의 과제별 최종 가중치 순에 따른 중요도 순이며, 최종가중치의 총합은 '1.0000'임.

주2 ★신규과제, ☆기존강화과제, 세부과제 '2.1.2'와 '2.1.3'는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보강함.

가. 돌봄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

1) 정책과제 1-1. 법·제도 기반 구축

□ 목적

- 정부의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초점을 둔 기존 돌봄사업과 지자체 돌봄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세부사업 및 내용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제정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돌봄으로의 방과후 돌봄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학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돌봄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범위, 돌봄사업 예산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제시

○ (제주도-교육청 연계 (가칭)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또는 통합돌봄지원단) 설치·운영

-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민으로서 아동의 권리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강화 및 통합협력 지원조직(지원단)운영 필요
- 센터(지원단)에서는 마을돌봄의 수요와 공급 계획 수립 및 기존 마을돌봄 외 수요자 맞춤형 마을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 발굴 및 선정·지원하고, 마을돌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컨설팅, 인력 양성·배치 등 담당함. 또한 수요자의 접근 용이성을 위한 돌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

□ 참고 사례 : 학령기 아동돌봄 관련 조례

구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공포일자	제정·개정
서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3.	제정
경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2020.1.13.	제정
인천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2021.2.23.	제정
충남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2021.7.20.	제정
	· 주요 내용	- 온종일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목적 규정 - 돌봄지원을 위한 도지사교육감의 책무 규정 -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 -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관련 사항 규정 - 아동돌봄협의회에 관한 설치 및 구성기능운영 사항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초등돌봄', '아동돌봄'으로 검색(2021.8.15.)

주. 시·군구의 학령기 방과후 돌봄 관련 조례는 제외함.

2) 정책과제 1-2. 전담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

□ 목적

-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으로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학교-마을 연계 협력을 위한 지원조직 구성·운영
- 정부 부처별 방과후 돌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과 지역사회 물적·인적 자원 관리 및 마을 돌봄의 통합지원 관리를 통한 지역중심 체계적 돌봄 수요 대응 체계 구축

□ 세부사업 및 내용

○ 돌봄 수요 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급 기반 돌봄 지원은 유지하고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 및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따른 일반가구 아동, 고학년 아동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
- 43개 읍면동별 학령기 아동 인구수 및 가구유형 분석, 기존 돌봄기관의 공급량 대비 실수요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돌봄 공급계획 수립 및 마을돌봄 확대 우선지역 선정·사각지대 해소 지원

○ 마을방과후 운영 공간 발굴 및 지원

- 지역별 아동인구 감소 및 기존 돌봄기관과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양질의 마을방과후 공간 발굴을 위해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방과후 활동 중심의 공간 공모·발굴(심사, 현장확인, 선정)
-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예술, 창의·과학, 신체·놀이, 생태·환경 등 방과후 활동 지원(※매년 공간선정 안내·홍보 및 재료비 수익자 부담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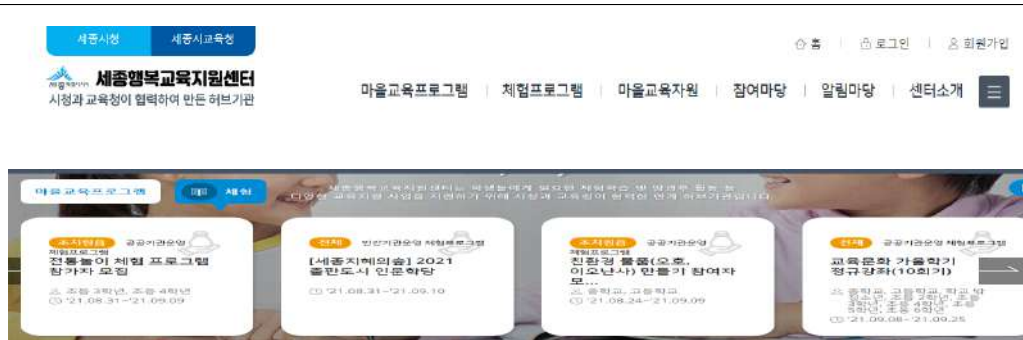
○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공모 및 연계 지원(※공간 발굴 연계 결합형 사업)

- 법인·단체·개인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방과후 프로그램 공모(프로그램+강사)·선정하고, 읍면동별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방과후 운영(※수강료 무료, 재료비 수익자 부담 고려)

○ 돌봄 참여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방과후 돌봄 봉사인력 발굴 및 신뢰감 있는 돌봄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 등 참여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 제안형태 1 : 전담지원 조직 사례(세종시청 교육지원과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¹⁾)



○ 설립 배경 및 목적

-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체험학습 및 방과후 활동의 허브기관으로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체계적·효율적 관리

○ 추진 과정

- 2018.09.20. 시장-교육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협력공약 공식 발표
- 2018.11.1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01.01.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세종시청 교육지원과 소속)
- 2019.03.26.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사무실 개소(보람동 스마트허브)

구분	센터 설립 조례의 주요 내용
설치 및 기능 (제1조~4조)	· (목적)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 교육력 향상, 학생 성장 발달 도모 · (설치 및 운영) 세종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기능 등) 체험과 방과후 활동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5조~11조)	· (설치 및 기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 · (구성 및 임기) 위원장(시장, 교육청 국장) 포함 15명, 2년 2회 연임 · (회의 및 수당) 정기회(연2회)·임시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한 사항(제12조~15조)	· (지원 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소요 비용 및 공간 지원 · (공무원 파견)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파견

○ 조직 체계 :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 기존 보건복지국 관련 부서 유지(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담당부서

신설 :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지원과' 신설·운영

○ 담당 업무

직위	주요업무
센터장(교육지원과장겸임)	· 행복교육지원센터 업무 총괄
행복교육지원센터 담당	· 행복교육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지역 교육자원 조사 계획 수립 등
장학사	· 복컴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장학사	· 행복교육지원센터 실무분과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전문가 자문단,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단 운영 등
주무관	·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행복교육체험터 발굴 및 연계 지원 등
주무관	·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 시청·교육청 실무담당자 TF 구성·운영 · 청소년 유관기관 '공감회의' 구성·운영 등

<센터 조직>



<운영 체계>



1) 본 사례는 연구진이 2021년 6월 16일 센터방문 시 담당자가 공유한 내용 및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검색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행정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방식의 통합지원센터와는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참고 : 제주도 및 세종시 학령기 아동연령대 인구 현황 비교

구분		총인구수	학령기 아동연령대 인구(만6~12세)		
			전체	여	남
세종시		355,831명	36,199명	17,706명	18,493명
제주도	전체	674,635명	49,937명	24,265명	25,672명
	제주시	492,466명	37,481명	18,192명	19,289명
	서귀포시	182,169명	12,456명	6,073명	6,383명

□ 제안형태 2 : 권역별 거점형 마을돌봄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 도농복합 형태의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 돌봄기관 평가를 통한 권역별 거점형 방과후돌봄 지원기관 지정 및 마을중심 돌봄 체계 구축
 - 마을돌봄협의회 운영 정례화 :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및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운영기관, 수눔음(공동)육아나눔터, 관련 민간기관 등)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 정기모임 및 필요시 상시 운영
 -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 연계 온종일 방과후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와 공급 현황 공유 및 연계지원, 수요 조정 및 배정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모델 중 하나인 ‘거점형 키움센터’의 기능 수행 형태로 생활권 내의 지역특화 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등) 및 부모교육 강화,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본 연구의 정책과제 2-2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볼 수 있음

〈 그림 6-2 〉 권역별 거점형 마을돌봄 지원기관 운영 모델



나.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1) 정책과제 2-1. 제주형 마을방과후 연계 체계 구축

□ 목적

- 본 연구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위주 오후돌봄 중심으로, 마을 공적 돌봄 제공기관은 공급량 대비 낮은 실수요자 비율 등을 보이며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따라서 부처별 각각 추진되는 기존 돌봄 지원을 수요자 중심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방과후 돌봄기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의 민간자원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세부사업 및 내용

○ 학교 및 마을 유희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

-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기관 외에 필요시 신규기관을 설치·운영하되, 읍면동별 아동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공유경제 차원에서 유희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
-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방과후 활동 중심의 공간 공모·발굴 및 선정·안내를 통해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재료비는 수익자 부담 고려)
- 불필요한 돌봄기관 확대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 배치로 돌봄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

○ 수요조사 기반 마을방과후 운영 확대 및 기존 돌봄기관의 운영 활성화 지원

- 최근 정부의 온종일 돌봄 추진 등에 따라 공적 돌봄 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효과로 맞벌이 가구 등 일반아동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자 기반에서 제외된 기존 취약계층 아동 및 일반가정 아동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또한 본 연구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은 돌봄기관이 아동돌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기존 돌봄기관의 운영 활성화 및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뿐만 아니라 돌봄 공급 우선지역 선정을 위해 학령기 아동 인구수 및 가구유형 분석, 기존 돌봄기관 공급 현황 등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돌봄공백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존 돌봄과의 협력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으로 방과후(방학중) 돌봄 확대 지원

○ 마을방과후 관련 모니터링 및 연계 차량 운행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10.11.제정·시행)에

의하면, “제7조(이용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종합복지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저소득층 중심의 돌봄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지역별 돌봄 공급 현황 및 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또한 지역분포가 넓어 학교 방과후-마을돌봄기관 간 혹은 마을돌봄기관-마을돌봄기관 간 원거리로 교통불편 지역 이동 시 연계 차량 운영 지원(※차량지원 가능지역 제외)

□ 참고 : 제주지역 공적 돌봄 정원률 대비 필요 공급 지역 추정

- 제주지역 공적 돌봄 정원률 대비 필요 공급량 추정하기 위한 추정 기준은 온종일 돌봄 계획에 근거 2017년 현재 33만명(12.5%/267명)에서 2022년 공급목표인 53만명에 계획시점 아동인원수를 고려하여 20%로 설정함
- 돌봄 공급량 추정 결과, 2020년 기준 제주지역 만6~12세 아동인구 대비 공적돌봄정원률은 15.6% 수준으로 정부목표(20%)까지 4.4% 비율만큼 확대 필요. 권역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 7.5%, 서귀포시 동지역 3.2% 비율만큼 확대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경우 공적돌봄 정원률은 분석 기준인 20%보다 다소 높지만 돌봄기관 외 기타 학원 등이 없는 이유로 지역에 따라 필요 돌봄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그림 6-3 〉 제주지역 공적 돌봄 기준 목표대비 필요공급 추정비율



〈 제주시역 43개 읍면동별 초등돌봄 수요 및 공급 추정(본 보고서의 <표3-3> 일부)〉

		돌봄 수요 추정(a)	학교돌봄 (b)	마을돌봄(c)			아동 인구 대비 정원률 (d+b+c/a ×100)	기준 (20%) 목표 대비 필요 공급 추정률
		만6~12세 아동 인구	초등돌봄교실 정원 (교실 수)	지역아동 센터 정원 (센터 수)	방과후 아카데미 정원 (시설 수)	다함께 돌봄센터 정원 (센터 수*)		
전체		49,937	5,575(223)	1,862(66)	360(9)	8(1)	15.6	4.4
제주시 동지역	소계	30,089	2,950(118)	634(23)	160(4)	8(1)	12.5	7.5
	정부 목표 기준(20%) 대비 공급 필요예측 지역							
	일도2동	2,438	225(9)	40(1)	-	-	10.9	9.1
	이도2동	4,013	375(15)	33(1)	-	-	10.2	9.8
	삼도1동	957	75(3)	-	-	-	7.8	12.2
	화북동	2,144	250(10)	61(2)	-	-	14.5	5.5
	삼양동	2,823	200(8)	58(2)	-	-	9.1	10.9
	아라동	3,264	250(10)	19(1)	40(1)	-	9.5	10.5
	오리동	1,404	125(5)	-	-	-	8.9	11.1
	연동	2,742	225(9)	19(1)	40(1)	-	10.4	9.6
	노형동	4,528	450(18)	88(4)	-	-	11.9	8.1
	외도동	2,247	225(9)	75(2)	-	-	13.4	6.6
	이호동	280	-	29(1)	-	-	10.4	9.6
서귀포시 동지역	소계	7,380	750(30)	411(12)	80(2)	-	16.8	3.2
	정부 목표 기준(20%) 대비 공급 필요예측 지역							
	동흥동	1,949	75(3)	158(5)	-	-	12.0	8.0
	서흥동	1,063	125(5)	19(1)	40(1)	-	17.3	2.7
	대륜동	1,047	175(7)	-	-	-	16.7	3.3
	대천동	1,130	50(2)	78(2)	40(1)	-	14.9	5.1
	중문동	854	100(4)	69(2)	-	-	19.8	0.2
제주시 읍면	예래동	201	25(1)	-	-	-	12.4	7.6
	소계	7,392	1,100(44)	425(16)	40(1)	-	21.2	-1.2
	정부 목표 기준(20%) 대비 공급 필요예측 지역							
	애월읍	2,920	400(16)	67(3)	-	-	16.0	4.0
	조천읍	1,760	200(8)	96(4)	-	-	16.8	3.2
	구좌읍	832	200(8)	122(4)	-	-	38.7	
	조천읍	1,760	200(8)	96(4)	-	-	16.8	
서귀포시 읍면	한경면	428	50(2)	53(2)	-	-	24.1	
	소계	5,076	775(31)	392(15)	80(2)	-	24.6	-4.6
	정부 목표 기준(20%) 대비 공급 필요예측 지역							
	대정읍	1,872	100(4)	77(3)	40(1)	-	11.6	8.4
	남원읍	955	200(8)	116(4)	-	-	33.1	
	성산읍	767	200(8)	93(3)	40(1)	-	43.4	
	안덕면	747	125(5)	48(2)	-	-	23.2	
	표선면	735	150(6)	58(2)	-	-	28.3	

□ 사례 : 빅데이터 활용한 수요 예측으로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 추진(오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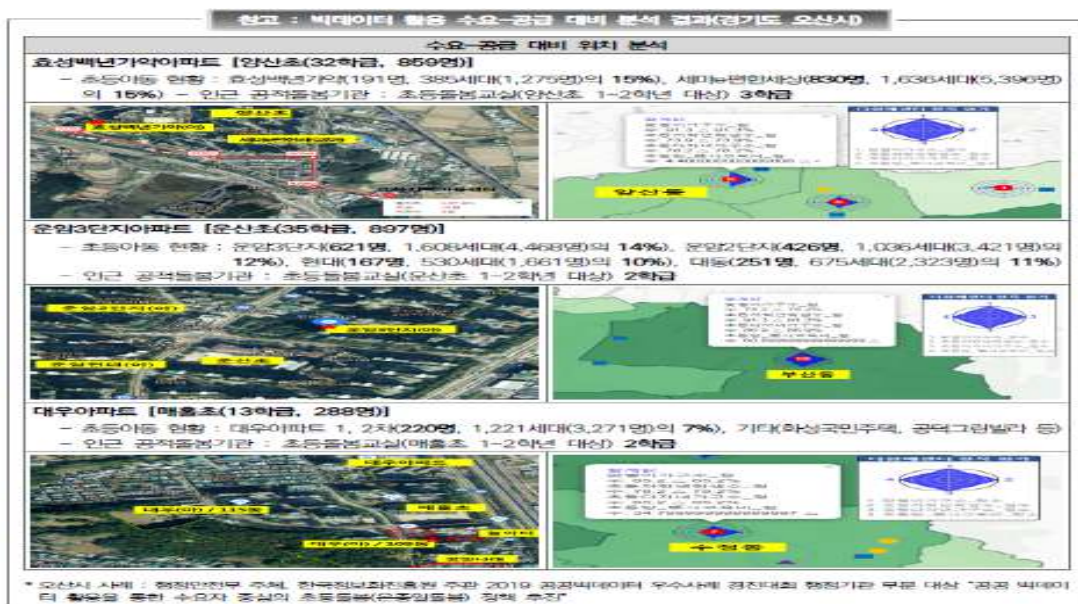
○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파악

- 초등돌봄교실 개소 수 및 수용률(교육지원청 자료), 동별·아파트별 초등학생 수 현황(주민센터 자료), 맞벌이가수 및 한부모가족 현황(통계청)을 활용

○ 기존 자료 활용 예시

참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 결과(경기도 오산시)				
구 분	데이터	주요 필드	출 처	기 간
주민등록 관련	주민등록인구	성별, 나이, 주소	오산시	연도말
	미래 인구수 추계	주소지별 향후 5년간 연령대별 인구수	추계	연도말
가구 데이터	가구별 인구	가구ID, 주소, 가구주연령/성별, 가구원수, 가구원연령대, 가구형연구성, 가구연령구성 등	오산시	연도말
	가구별 생활수준	가구ID, 주소, 거주연적/가격, 소득, 소비지출, 사교육비, 맞벌이비율 등 총 129개 항목	추계	연도말
거주주택	건축물 관리대장	주소, 층별, 면적	국통부	연도말
	공동주택가격	주소, 층, 호, 공동주택면적/가격 등	국통부	연도말
가계동향 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득, 맞벌이가구수, 자동차보유대수, 가계지출, 식료품비, 교육비 등 약 140개 항목	통계청	최근
POI	업체별 종사자수	업체명, 주소, 국민연금 가입자 수 등	국민연금	최근
	사업체 인허가	업체명, 업종명, 주소	오산시	최근
	생활 정보	은행, 병의원, 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노인돌봄 등 서비스 수행기관 등의 명칭, 주소 등	데이터 포털	최근
데이터 집계공간	격자	100m, 200m, 500m, 1Km	국토부	연도말
	지역 경계	행정동 경계, 법정동 경계, 기초구역 경계	국토부	연도말
지도	지형도	지형도 등	국토부	최근

○ 수요-공급 대비 분석 결과



출처: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p.41-42. 한국교육개발원.

2) 정책과제 2-2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목적

- 본 연구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돌봄시설 끝나는 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메우는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요구를 제안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율의 변화에서 돌봄 취약 비율이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나 지역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기존 돌봄체계와 인프라를 존중하고, 전달체계의 중복성, 분절성,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여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 체계 마련

□ 세부사업 및 내용

○ 돌봄 공백 아동 발굴 및 기관 연계 지원

- 지역자원 긴급돌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학대, 결식, 교육소외 등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및 기관 연계 지원
- 하나의 추진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촘촘한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 동네키움센터 운영 형태 중 하나로 2019년 거점형 키움센터 2곳 운영에서 2022년까지 25곳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거점형 키움센터는 서울시 직영으로 마을돌봄기관 지원사업, 일시·긴급돌봄 서비스, 문화·예술·체육 및 부모교육 강화 등의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중심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

- 모든 아동들이 갑작스런 상황, 아픈 상황, 재난 상황 등에도 차별없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돌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공동체, 마을활동가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중심 긴급돌봄 체계 마련
- 하나의 추진 사례를 보면, 2020년 10월 29일 개소한 서울시 노원아이돌봄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해 맞벌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자원 연계위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 정규수업을 마친 후 집 근거리의 나눔터, 마을도서관 등 공간에서 아이들이 학원 등을 이용하면서도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 확대

□ 사례 1. 서울특별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자료: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

□ 사례 2. 서울시 노원구청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2020.10.29.개소)

노원구청 아픈아이돌봄센터	
· 지원내용 - 병상 돌봄 : 감기, 몸살, 비전염성 장염 등 가벼운 질병이 있는 아동 - 병원 동행 : 서비스 신청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2인1조 동행 → 인적사항/예약시간/귀가장소/투약의뢰 등을 확인 → 아이와 함께 돌봄센터 전용차량으로 병원 이동 → 진단 및 처방 등 전 과정 서비스 지원(돌봄이 필요하면 센터에서 돌봄 지원).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전 과정을 안내하며 아동상태, 의사전달사항, 약복용법, 병원비 등을 메시지로 전송 · 노원구청 아픈아이 돌봄센터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노원아이돌봄센터 3층 - 이용방법 : 노원아이돌봄센터 회원가입 후 전화로 서비스 신청 - 이용대상 : 노원구민 및 노원구 관내 만4세~초등학생 - 이용료 : 센터이용료 무료, 단 병원비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 (회원신청시 선입금해야하며, 분기정산 후 미사용금은 환불처리) - 이용시간 : 평일 09:00~19:00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owonwith	 [센터의 병원동행 서비스]
 [지하1층 아동식당(유료3,000원)]	 [3층 아픈아이돌봄센터 내부]
 [책과 장난감 놀이 공간]	

자료: 시정일보(2021.8.19..일자)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호응도 ↑ - 시정일보 (sijung.co.kr). 서울시(2020.12.9.일자)노원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소! 아이 이플 때 조퇴 그만~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다.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과제

1) 정책과제 3-1. 마을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 본 조사 결과, 돌봄 기관별 대상자 중복으로 인한 이용 아동 발굴 어려움, 단위학교-마을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부재로 정보 공유 및 아동 연계 등 협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종일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함
- 따라서 민관 협력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현장 의견수렴, 마을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동일 생활권 내의 유기적 연계체계의 마을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세부사업 및 내용

○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논의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학교-마을 돌봄의 수요-공급 정보 공유 및 생활권 중심의 마을돌봄협의회 구성을 통해 돌봄기관 간의 기능 강화와 지역자원 활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 제고
- 마을돌봄 거버넌스는 학교돌봄(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수눔음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운영기관 등)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 정례화(※연4회 정기 및 수시모임)
- 운영 내용은 마을단위 돌봄 수요-공급 현황 파악 및 수요 배정-연계 지원을 통한 소통과 협력체제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마을방과후 자문단 연계 지원)

○ 마을돌봄기관 소통협력 네트워크 운영

- 마을 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돌봄기관 실무자들 간 협력 및 사례 공유 네트워크 운영 정례화(※연4회 정기 및 수시모임)
- 마을돌봄기관 실무협의체는 학교돌봄(돌봄전담사)과 마을돌봄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고, 각 기관별 인적·물적 자원 연계, 프로그램 연계, 아동 연계 및 정보 교류와 사례 발굴 등으로 생활권 내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방과후 자문단 운영

- 마을방과후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고, 마을돌봄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컨설팅 지원

□ 참고 : 온종일 돌봄 체계의 지역돌봄협의회



주. 지역돌봄협의회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거한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중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체계> 및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7조~제8조(제정 추진 중)에 광역돌봄협의회와 기초돌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의무를 부과함. 광역돌봄협의회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교육청과 협업하여 구성, 기초돌봄협의회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구성함.

자료: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62. 한국교육개발원

□ 관련 사례 : 온종일돌봄 실무협의회 운영

의성군 아동 온종일돌봄 실무협의회 개최(2021.6.14.)

의성군은 최근 지역 실정에 맞는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및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의성군 아동온종일돌봄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아동돌봄서비스 관련 부서별 담당자들은 회의를 통해 서로 돌봄 정보를 공유하고 의성형 아동온종일돌봄 매뉴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앞으로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및 유치원 부모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성형 아동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2019년 온종일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1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자료 : 대구일보(2021.6.15.일자). <https://www.idaegu.com>.

2) 정책과제 3-2 정보의 접근성 제고

□ 목적

- 방과후돌봄 관련 현황 및 이용 정보 등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돌봄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의 '정부24'에서 지원하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의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 가능하고,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정보 플랫폼 구축 및 활용도 제고

□ 세부사업 및 내용

○ 마을방과후 돌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다각화

-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본으로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놀이, 체험 중심의 마을방과후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마을방과후 돌봄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 마을방과후 돌봄 정보 제공을 위한 PC/모바일 접속 가능한 온라인 돌봄정보 플랫폼 구축 및 수요자 접근 용이성을 위한 학생 모집 시 QR코드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소개, 서비스 예약, 맞춤형 정보 및 홍보자료 검색, 학교 돌봄-마을돌봄 기관 찾기 검색 기능 및 정보(위치, 연락처, 현황 등) 등 제공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포털' 모바일 구성은 다음과 같음

모바일 구성	주요 내용	
서비스 소개	서울시 및 정부의 돌봄 정책 소개	
돌봄서비스 예약	돌봄서비스 예약 안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	
거점형 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소개, 서비스 안내, 정보제공	
맞춤형 정보	연령대별 돌봄시설, 보육정보, 교육정보 등 검색	
아이돌봄지도 서비스	우리동네 주변 돌봄 시설 및 행사 정보 제공, 정확한 위치 표기, 아이돌봄 시설 정보 활용 지원, 이용자 편의 고려 위치 정보 시각화 서비스 제공	
홍보·자료	키움센터 소식, 공지사항, 동영상, 자료실, 블로그 등	
우리키움참여단	우리키움참여단 소개, 인증, 활동 소식 등	

○ 방과후돌봄 홍보물 제작 및 읍면단위 배포

- 다양한 수요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읍면단위의 방과후 프로그램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

토 론

좌장: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손민경 (서울시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장)

박미란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고의숙 (남광초등학교 교감)

민근희 (초등학생 학부모)

이승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한영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순녕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 1호점 운영사례

마을 중심의 협의회 구성 및 돌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손 민 경

(서울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장)

1. 연혁 및 현황

1) 연혁

- 2016.08.01. 서울시 공간지원(지역재생리빙랩) 바탕으로 '우리이웃집' 개소
- 2017.01.01. 현 장소로 이전 및 돌봄사업공간 '별별재미난교실' 조성
- 2018.06.01.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 운영 시작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위탁 운영)
- 2019.01.01. 성북구청 직영시설로 전환
- 2021.01.01. (사)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위탁 운영 중

2) 현황

- 정원 및 교사현황 : 상시돌봄 및 일시돌봄 29명 + 긴급돌봄 5명
센터장 1인 + 상근교사1인 + 반상근교사 2인
- 운영시간 : 학기중 11시 ~ 19시 , 방학중 09시 ~ 19시
- 주요활동 : 기본활동 , 공통활동, 배움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활동 진행

2. 마을 중심의 협의회 구성

1) 사업 초기 (2016년)

-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 구성
- 지역사회 돌봄 전문가와 초등틈새돌봄사업 실행 주체들로 구성
- 정례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주요 현안과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이름	소속 기관 및 단체
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장위동 소재)
박**	**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손**	우리동네보육반장
송**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공동대표
원**	성북구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부단장
유**	성북구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팀장
조**	(전)초등틈새돌봄교실 교사 (전)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감사
허**	(전)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공동대표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하**	지역 학부모
이**	지역 학부모

2) 지역에서 본격적 틈새돌봄시작 ('별별재미난교실' : 2017년1월~2018년6월)

-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로 구성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하나의 활동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기관 및 단체
하**	장곡초 학부모 , 마을강사
허**	성북 작은도서관네트워크 대외협력분과장
김**	장위도시재생주민협의체 총무, 장곡초 학부모
김**	다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	별별재미난교실 돌봄교사
남**	장위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박**	장곡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박**	장위도시재생센터 센터장
백**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팀장
손**	별별재미난교실 센터장
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부단장
이**	장곡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장**	장위1동주민센터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조**	별별재미난교실 돌봄교사

3)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2018년 6월 ~ 현재)

- 실제 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연계와 지역에서 함께 돌봄 생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운영
-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돌봄시설들과 마찰이나 경계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 돌봄 생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로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었음

이름	소속 기관 및 단체
강**	장위도시재생센터 코디
김**	다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	이용아동 대표
김**	장위 청소년누림센터
선**	성북구2호점(융합형) 키움센터센터장
손**	성북구1호점 키움센터센터장
이**	성북구청여성가족과
전**	장곡초지역전문가
엄**	이용아동학부모
이**	우리동네 보육반장
장**	장위행복누림 도서관 관장
조**	성북구1호점 키움센터 돌봄교사
하**	보드야놀자 주민동아리 운영
현**	함께세움 협동조합 대표

3. 돌봄지원사례

1) 지역사회 내 협력 관계

1) 장곡초등학교

- 지역사회전문가(학교사회복지사) : 돌봄 필요 아동 연계 및 추천,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관련 필요 정보 공유, 프로그램연계·학교와의 소통에 있어 다리 역할

2) 지역 교육복지협의체 및 교육복지공동체

- 사업공유 및 참여 : 장위석관마을아동청소년어울림축제 ,아동사례관리참여

3) 장위1동주민센터

- 아동청소년플래너 : 돌봄 필요 아동 추천, 아동 및 가정 사례관리참여

4) 장위도시재생센터

- 초기 운영 공간 지원 (지역재생리빙랩)
- 지역축제 참여 및 프로그램 공유
- 시설 개선 연계 (가꿈주택 골목길 개선 사업을 통한 담장 철거, 화단정비, 가로 등 설치, 등하원 통행로 CCTV 설치 등)
- 주민 공모사업 연계 참여(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활동 연계및직접참여)
- 유휴공간 활용

5) 장위행복누림도서관 / 장위 청소년누림센터

- 유휴공간 활용
- 프로그램 공유 및 참여

6) 동네배움터 거점 공간

- 프로그램 진행 공간 제공 및 활동 공유 및 참여

7) 각종 주민모임 및 재능기부

- 주민자치회, 주민복지협의체 참여, 세부사업에 동참
- 마을에서 활동 중인 주민 협동조합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 지역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자발적 재능기부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크렐레, 보드게임 동아리 운영)

8) 지역 자원봉사

- 지역 청소년들을 연계한 재능기부 형식의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졸업 아동들과의 관계를 지속성 있게 이어나감
- 지역 내 학부모 및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돌봄에 참여
- 외부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봉사활동 뿐 아니라 키움센터 이용 아동들이 주체

가 되어 '골목청소단' 구성 . 매주 1회 가꿈주택길 골목청소에 동참 하고 꽃길을 가꾸는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음

4. 정리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은 2015년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민들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초등돌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확인함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도시재생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서울시 예산사업을 통해 아동 및 주민 쉼터 형식의 '우리이웃집'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 후 확장해 2017년 현재의 자리에서 '별별재미난교실' 이란 이름으로 보다 탄탄한 마을틈새돌봄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기간에 있어 제한적인 예산들을 바탕으로 돌봄을 운영함으로 3년을 운영하기 어려웠으나 마침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1호로 선정되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부터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의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지금도 마을에서 연계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의 자원들은 실제 돌봄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마을과 함께 하는 키움센터를 통해 아이들 또한 지역 주민의 한 주체임을 다양한 활동과 자원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 또한 마을에서 마을과 함께 항상 소통하며 개방적인 운영을 하는 '별별재미난교실'을 다른 여느 시설과는 차이를 느끼며 그 신뢰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정리 된 내용 외에도 현재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종사자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서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 여성들에게 시간제 돌봄교사나 프로그램 강사활동을 돕는 등 꾸준한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건강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센터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으며 그 관계를 이어 갈수 있지만 현재 키움센터의 경우 초등학생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해마다 2월이 되면 헤어짐과 새로운 만남이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단절이 된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탄탄하게 구성된 돌봄관련 협의체를 통해 아이들을 좋은 기관으로 연계하고 아이들의 생활모습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아동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졸업한 아이들이 키움센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떤 곳인지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센터 입장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인적 자원이 되며 키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재능기부라고 하지만 거창하게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이접기, 클레이, 보드게임, 바깥놀이 등등 키움센터에서 자란 청소년 아이들도 경험의 일상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재능기부가 되고 있으며 센터에 있는 동생들도 언니, 오빠들을 매우 기다리고 좋아한다.

지역에서 잘 구성된 돌봄 생태계가 아동들의 돌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

지역에서 수년간 돌봄을 담당해 본 결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인 돌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는 이상적인 돌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센터 전경(장곡초등학교 인근에 위치)



동네 주민들과 함께 감 수확 하는 날



지역에서 유명한 축제 퍼레이드 참여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엄마와 함께 아동청소년 지역축제 참여



청소년누림센터 세미나를 활용한 비대면 스텀링 활동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박 미 란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마을교육공동체별발 대표)

들어가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 재난에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취약한 집단들이 실로 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권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으며, 전 세계 아동과 가족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특히, 아동의 일상과 돌봄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난 취약집단에 대해 촘촘하고도, 집단 유형별 맞춤형 돌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아동돌봄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별히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의 경우 그 충격이 훨씬 더 크다.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돌봄 역할이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갑자기 단절되었고 이 공백은 그대로 가정의 부담이 되었다.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 지나친 부담감으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 학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빈도 발생이 2배 이상 증가 되었다. 이는 빈곤층과 여성, 장애아동 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폭력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인천에서 코로나19로 초등생 두 형제가 비대면 수업 동안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해, 아동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아동방임 등의 아동 보호 문제와 학대 등 심각한 우려가 현실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으로의 서비스 중심이 아닌, 관심과 염려, 책임, 상호신뢰가 ‘돌봄’과 ‘권리’ 존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처럼,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극복하여 아동 돌봄과 권리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와 책무를 다하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방과 후 돌봄 뉴딜 방안’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사각지대 없는 제주지역 방과 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구좌에서 마을이 돌봄의 장이 되고, 마을이 배움터이며 방과후학교의 장이 되도록 학교, 아이, 어른들이 만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가 되던 2004년 이전 공부방 시절부터 20여년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보호라는 기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출발하였으나 점점 사회가 다변화 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단순한 보호만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아동성장을 도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아동들에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온 마을의 어른세대는 성장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이 사람숲에서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과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빈곤아동, 일반 아동들의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단순 돌봄의 기능이 아닌 지역사회 아동복지관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개인의 시설을 넘어, 개별프로그램을 넘어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고,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성장하도록 도왔다.

‘한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개인’에서 ‘마을’로 함께 키우기로 마음먹은 이래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교육 복지와 다양한 문화 환경을 만들고, ‘관계’속에서 성장하는 배움을 희망하며 아이들과 함께 걸어왔다.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이루게 돕고 지역사회 아동이 자기 결정권으로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프로그램으로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도우며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 소통, 성장하는 지점을 만들고자 노력한 사례들이다.

주요활동 및 성과

○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내사랑 구좌읍’ 만들기로 사회안정망 구축

- 농어촌 마을의 특성 이해, 마을중심 함께 키우자
- 가치와 가치를 추구, 마을에 인사하며 손잡는 일부터 시작
- 학교, 기관, 지역사회, 가정의 연대, 구좌꿈비디네트워크 구축

○ 마을속 학교, 학교속 마을이 되도록 학교와 연대

- 구좌관내 초중고학생상담자원봉사, 학교폭력예방강사,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세화중운영위원으로 학교밖에서 학교를 지원 협력
- 평대초등학교 세화요양원 방문시 차량지원(7년), 세화중 악기대여(3년)
- 자유학기제 영상미디어수업, 학교방송국 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 세화중 ‘월랑제’ 매해 참여
- 지역내 빈집에서 성인물 보는 아동들 학교와 연대 성교육, 성상담 진행

○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학교, 꿈터, 배움터 만들기

- 문화센터가 없는 구좌마을에서 구좌어린이발레단(2005년)
- 제주사랑 노래하는 구좌어린이합창단 창단(2012년)
- 꿈을 연주하는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2015)
-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고 알린다”구좌어린이기자단(2014년)
안전한 마을만들기 캠페인, 마을신문, 팟케스트, 세화해녀오일장 홍보대사
- 세화씨지키장, 안전한마을만들기, 깨끗한마을만들기, 환경캠페인, 생활운동

○ 비행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지속 돌봄과 상담자·지지자 역할

- 학부모와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과 등굣길 선도활동, 유해환경 아웃리치
- 제주시법원소년보호위탁보호자(구좌청소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상담)
- 구좌읍 관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사례관리 90케이스(3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부방 꾸며주기, 멘토링 연결해주기

○ 모두가 돌보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 마을학교

-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함께하는 꿈꾸는 패션쇼
- 학교와 지역사회 연대하는 구좌체육관 전통놀이축제
- 해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아이들의 축제 ‘아끈벨롱장’
- 구좌관내 기관들과 연대한 ‘소소한 마을축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장애인분관,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문화의집,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종달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벨롱장, 동녘도서관, 소소리문화연구소, 세화리사무소 등)
- 마을이야기 그림책 ‘당근이지’ 출판등록, 1600부제작 배포, 굿즈제작
- 마을풍경(어반스케치) 그림 전시회 및 굿즈제작
- “삼촌 고라좁서” 우리동네 삼촌이야기를 책 제작
- 우쿨렐레로 제주어 노래 배우기, 제주어 노래집 만들기

○ 교육으로 마을을 잇는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 구성원(현재구좌관내초중고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구좌관내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학식과덕망이있지역인사, 지역주민 등 15명 구성)
- 연결과 배움 전문적 학습동아리, 도외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연수(2019)
- 구좌4.3 평화로 마을을 잇다.(구좌아이들과 4.3길 함께 걷다. 2020)
- 구좌4.3마을지도, 교육용 수첩제작, 1000부 구좌관내 학교배포
- 구좌읍교육자원지도 제작(2021)

이처럼 문화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마을에서 놀고, 마을에서 꿈꾸고, 자라도록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는 일에 힘썼다. 발로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여쭙고, 상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이 아닌 욕구충족과 생애주기별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마을이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농어촌에서 열정으로 시작했던 외로운 그 길에 ‘아이들이 마을의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연대와 소통의 움직임 속에서 마을학교, 마을교육 분위기가 무르익더니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구좌마을에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참

여와 협력으로 모두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실현 하고자 마을 교사들을 기반으로 비영리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별밭’이 만들어졌다.

마을에서 고라사주 100인 원탁토론이 있었다.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자리에 미래세대분과로 아동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반영되었고, 그중 하나로 60여 평의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전용공간이 마련되었다. 마을 어른들이 만들어 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은 쉼 없이 고민하며 수작과 작당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일을 함께 할 마을교사들을 발굴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좋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온 마을 학교 ‘별밭’은 순수한 우리말로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뜬 모양’을 밭에 비유한 말이다. 당근과 감자 양파 그리고 마늘 등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구좌에서 별처럼 빛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도전하여 그들의 꿈을 실현하며 장기적으로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마을 어른이 되도록 건강한 교육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별밭에서는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기관, 전문단체,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고, 구좌지역 지역 활동가들과 마을교사들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곳에서 ‘사람살이’와 ‘마을살이’를 배우게 하며 주도적, 참여적, 주체적인 우리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마을 모두가 돌보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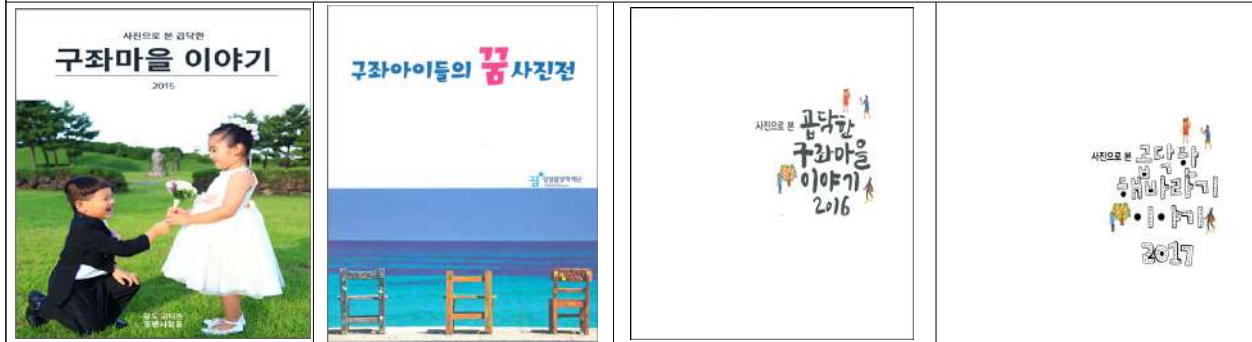
‘마을+교육+공동체’ 어려운 낱말 세 개가 만나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켰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교육공동체 구축의 열정을 가진 활동가 교사 지원자들을 육성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기획으로 보다 세밀하고 연속성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두 기관이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서로 이해는 다르지만 교육에 있어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는 학교현장의 변화와 학교와 지역사회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바라는 시민사회, 학부모, 학생들의 현재 요구이다.

아이들과 해마다 구좌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펴냄



아이들과 구좌마을 이야기를 사진첩으로 제작함



꿈을 연주하는 구좌청소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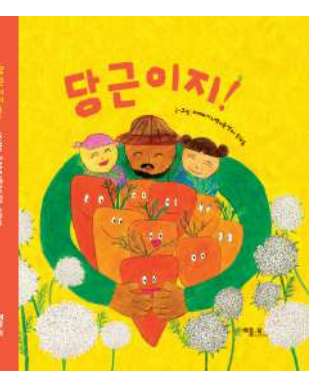
제주사랑을 노래하는 구좌어린이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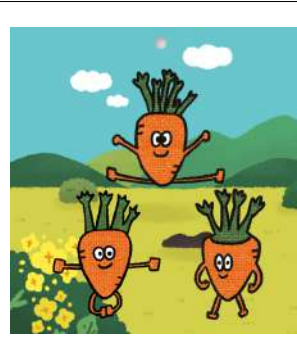
구좌의 자긍심을 키우는 구좌청소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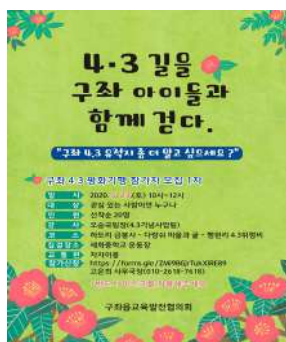
마을축제와 마을이야기책 '당근이지'



당근이지 그림책 캐릭터로 굿즈 제작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진단과 과제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고 의 숙
(남광초등학교 교감)

I. ‘코로나19’와 학교의 역할

코로나19는 학교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부분 등교, 긴급돌봄 등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겪으면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력 격차’, ‘정서 지원’, ‘돌봄’의 문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다시 본질적으로 묻고 있다.

II. ‘돌봄’을 보는 학교의 시선

‘학령기’는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¹⁾’라고 정의되고 있다. ‘의무 교육’은 9년의 교육 기간의 의미를 넘어서 헌법 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학습의 격차, 정서 지원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초등돌봄’은 ‘교육(학습)보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둔 서비스로의 전환²⁾’을 의미하고 있어 교육활동과 별개로 볼 수는 없으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과제이다. 그 결과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학교 내 직종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출처: Daum 어학사전

2) 손태주, 김은정, 신승배(2020).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Ⅲ. ‘공(公)적 돌봄 확대’ 필요하지만... 어려운 학교

사회적 필요, 정책적 요구를 넘어서 실제 아이들의 삶에서 ‘돌봄’이 더 필요하고 중요해진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한다. 그러나 학교는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하기에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1. 공간과 시간

돌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 지역 대규모 학교의 경우, 돌봄 수요자는 많으나 교실 형편상 제한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다. 돌봄 전용 교실은 일부이고 일반교실과 겸용 교실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겸용 교실의 경우 대부분 저학년 교실을 함께 사용한다. 오전 수업을 마친 선생님이 오후에는 돌봄교실로 교실을 내주면 학생 상담이나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별도의 공간을 찾아서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일반교실의 물리적 여건(책상, 바닥 등)은 장시간 머물며 돌봄의 취지를 살리기에 적당치 않은 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방과후 기초학력 지도에 여념이 없는 일반교실에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2. 교사, 돌봄전담사, 교육행정직, 그리고 학교

초등돌봄 운영은 업무 담당 교사와 돌봄전담사, 운영지원은 행정실이 담당한다. 업무 담당 교사는 돌봄 운영과 관련된 계획(예산,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돌봄전담사는 교육 운영 및 아동 관리, 재정 지출은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돌봄전담사 사정에 따라 일반학급 교사들이 대체 교사로 투입되기도 하고 학부모의 저학년 전입 상담에는 돌봄교실 참여 여부를 중요하게 문의한다. 학교의 여러 분야 직종이 관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도 많은 업무가 되었다. 그만큼 책임도 크고 민원도 많다.

Ⅳ. ‘공(公)적 돌봄 확대’를 위한 제언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부여된 과제와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공적 돌봄 확대’는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1. ‘돌봄’의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보장

초등돌봄이 제주지역 방과후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학교 활동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점,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보편적인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처럼 집과 가까운 곳에,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서 안전한 울타리의 보호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방과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사업으로 전환

돌봄은 ‘교육보다는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돌봄과 더불어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 관련한 예산과 조례와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고 ‘온종일 돌봄’의 취지가 실현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3. 마을과 학교의 협력

학교가 부여받고 있는 ‘초등돌봄’은 무겁고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공간, 프로그램, 인력의 문제 모든 것들이 마을과 함께 할 때 해결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더욱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른들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

학령기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 근 희

(초등학생 학부모)

1. 학령기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방향 관련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학교, 마을 및 관계 부처 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있다.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의 권리와 사각지대 없는 방과후 돌봄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라는 바이다.

1-1. 학교 내 돌봄 시간 확충

아이를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라고 할 것이다.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돌봄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시간, 공간)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안 1)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 돌봄은 1~2학년 맞벌이 대상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3학년 이상의 아이들도 방과후수업시간이 맞지 않으면 이른 귀가에 나홀로 아동이 되는 돌봄 사각지대가 된다.

또한, 돌봄교실이 5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정작 회사 퇴근시간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교 후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거나 1-2시간은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돌봄 교실을 확충하여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는 없는 건지?

제안 2)

학교도서관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도서관 내에서도 자연스런 돌봄이 이뤄지는 걸 이용하면 될 것 이다.

안타깝게도 현 도서관의 운영실태는 인력배치를 제일 적게 하고 자원봉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지역 내 유휴공간 및 인적 활용

지역 내에 공간은 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인지, 어디에서 관리하는 곳인지, 담당은 누구인지 알 수 없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각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단위마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들을 점검해본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리라 본다.

제안1)

마을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놓음육아나눔터(제주도에서 2016년부터 육아 및 돌봄 나눔 공간으로 설치, 운영 지원 중)

복지관 외에도 연계 가능한 공간들을 점검해 본다.

새마을 작은 도서관 / 리사무소 강당 등

읍면동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배달강좌나 온마을 돌봄사업으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

제안2)

시니어클럽이나 지역내 작은동아리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해본다.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 이야기 보따리 어르신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중)

전래놀이 활동가 (재능나눔이 가능한 인적자원) 등이 있다.

토론문

이 승 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토론문

한 영 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토론문

강 순 념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